문화광장

벽화를 위한 변명

김 연 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우리나라에서 벽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랑받은 만큼 욕도 먹고 있다. 벽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초장기,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벽화를 감상하는 색다른 경험은 사람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벽화를 보려는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재개발 계획이 바뀌거나, 마을이 활기를 되찾은 사례는 성공 신화가 되어 다른 마을로 벽화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적은 예산,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자 벽화를 보는 시각이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벽화는 자신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 억울함을 토로한다. 벽화에는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먼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벽화가 그려져 온 이유는 각 시대마다 벽화가 지닌 사회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벽화는 주술적 목적으로 그려지기도 했고, 성경이나 역사 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찾거나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일도 벽화가 담당했다. 따라서 벽화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문제가 되는 벽화를 양산하게 만드는 잘못된 인식과 제도를 비판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식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제주도 거로마을의 한 삼거리에도 벽화가 있다. 이 벽화 '생명수가 흐르다'는 일종의 마을 역사화다. 벽화에는 삶의 근원이 돼 온 화북천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화가 정현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벽화에 집대성했다. 특히 벽화는 스무 가지 색으로만 그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독특하고도 풍성한 색감을 보인다. 화가로서 30년간 색채 탐구를 지속해 왔기에 이러한 제약을 독창성으로 바꿔냈다. 색채의 의미와 더불어 풍경, 사람과 동물, 남녀노소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화면 구성이나 추상에 가까운 면의 분할이나 면과 면이 만나는 경계에 인위적으로 만든 두께감 등이 갖는 의미는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 즉, 거로마을은 큰 규모의 작품을 그것도 원작을 소장하게 된 것이다.

정현영의 '생명수가 흐르다'에서 위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벽화는 그저 예쁜 그림이거나 장식품이면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작가는 캔버스 위의 작품과 벽 위의 작품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 자신의 작품이다. 그런 작가에게 벽 위의 그림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그리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미술인 벽화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가가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계약 방식과 서류 등의 문제에서부터 제작 시간과 예산의 문제까지 많은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

작가가 마을 사람과 소통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담은 벽화를 야외에서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은 필요한 예산이 커 보일 수 있고, 그에 비해 작품이 그려질 면적이 작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1년 뒤에 사라져도 아쉬울 것 없는 그림이 아닌 계속 관리를 해서 영구적으로 소장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제주도민의 세금을 아끼는 일이다.

사설

도심지 주차난 해소할 실효적 대책 필요

자동차가 급격히 늘면서 초래된 교통난과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특히 주차난은 심각하다. 제주시 도심지는 어느 곳 할 것이 없다. 특하면 주차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기 일쑤다. 이런 실정인데 제주시 도심지 주차장 확보율은 의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2019년 100.1%를 돌파한데 이어 2022년에는 119.4%로 늘었다. 19개 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평균 121.3%에 달한다.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도두동(189.9%), 일도1동(182.4%), 삼도2동(159.9%) 순으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원도심 지역인 용담1동(71.3%)이다. 그 다음 일도2동(76.7%), 삼도1동(81.6%), 화북동(87.0%) 순이었다. 이들 4개동과 외도동(100.2%), 삼양동(100.7%), 이도2동(116.2%), 봉개동(120.8%) 등 8곳이 평균보다 낮았다. 평균보다 높은 동지역은 11곳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동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꽤 높은 편이다. 7개 읍면의 주차장 확보율은 평균 114.1%다.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다. 그런데 제주시 도심지 주차장 확보율이 100% 넘었는데도 주차난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00% 이상 갖춘 이도2동이나 이보다 크게 미달된 삼도1동이나 주차난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도심지의 도심지라 할 수 있는 삼도1동 지역만 봐도 알 수 있다. 삼도1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80% 웃돈다면 이면도로에 주차할 공간이 어느 정도 넘쳐나야 한다. 하지만 이면도로 곳곳에는 발디딜 틈이 없을만큼 들어선다. 주차장 확보율과 실상이 다르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도심지 주차난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화대공원사업, 10여년간 '헛물' 켠 도정

평화의 섬 제주에 가장 상징적인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장기 표류 원인은 국방부와 제주도간 '네 탓' 공방이 아닌 현행법상 불가능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도는 그간 평화대공원조성사업의 10년 넘는 지지부진에 '알뜨르비행장을 대체할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방부와 '조건없는 양여'를 주장해 온 도와의 입장차를 들먹이며 국방부 탓을 해 왔다. 그러나 도의 무상양여 주장은 제주특별법 근거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도대체 도정이 관련 법 조항의 존재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10여년동안 '네 탓' 공방만 벌여올 수 있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유재산인 알뜨르비행장은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적용을 받는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양여 조건에 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유재산을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에 무상 사용 가능토록 규정을 두면서도 다른 법으로는 이같은 '특례'를 정할 수 없게 못박고 있다. 결국 제주특별법에 나온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근거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때문에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당장 국방부에서 무상양여 입장을 보여도 도에서 넘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도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 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법 동시 개정에 나섰지만 '뒷북행정' 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도는 장기간 사업 표류에 국방부의 입장변화 촉구와 정부·청와대 건의에도 진전 없다는 입장을 밝혀오다 현행법상 불가능해진 현실에 행정의 '과오' 인지 원인 파악과 함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사업성사를 애타게 기다려온 도민들의 허탈감을 풀어야 할 것 아닌가. 이번 사안이 10여년간 '헛물만 켠'채 우물쭈물 넘어가선 안된다.

열린마당

공항소음대책지역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양 용 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주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2020년 10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다. 제주는 2018년 5월 29일 고시 기준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읍 일부 지역이 이에 포함되며 면적은 15.4㎢로 인구 수는 2만2805명이다.

제주국제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이라면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여객 공항이용료 4000원 및 국제선 여객 공항이용료 1만2000원을 1명당 연 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항공권과 통장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예산 확보 후 2022년 1월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시범 추진 후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등으로 도의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소음민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및 의견을 수합해 주민의 체감이 높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반영해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과 공항이 공존할 할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서울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토론회

원 지사 정책 토론회 주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카페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이날 원희룡 지사는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강조할 계획.

한편 원 지사는 그간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어 눈길. 강다혜기자

산불조심기간 마무리 자평

○…제주시가 지난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 2021년 산불없는 해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단 한 건의 산불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

시는 산불감시·진화인력과 고해상도 드론 2대·산불진화차량 16대·산불진화장비를 투입해 41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한 것으로 집계.

한 관계자는 "산불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이달말까지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서홍동주민자치위 주말농장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내 유휴 공유지를 활용, '도심 속 행복한 주말농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

주민자치위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 서홍동 행복가득 텃밭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12세대를 모집할 예정.

김수현 위원장은 "세대당 33㎡(10평) 이내의 텃밭을 분양하고 묘목과 씨앗 나눔, 재배방법 전수 등의 내용으로 주말텃밭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힘든 시간 속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첨언. 백금탁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